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3 columns: E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2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SBS 동계올림픽 단독중계 '명암'

명 중복편성 피하고 채널 선택권 보장

암 중계 다양성 결핍·종목 선택권 박탈

최고 시청률은 49.8%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영타리 해설 논란과 인기 종목 위주의 편성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SBS의 단독 중계로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국내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은 보장됐다. 올림픽을 보기 싫은 시청자는 다른 채널을 선택하면 됐다.

더 불만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S의 한 관계자는 "SBS 단독중계로 시청률이 이렇게 높는데 국가 기간방송사인 KBS 등 타사도 함께 중계했다면 더 높은 시청률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복편성을 피하자 이번에는 다양성 결핍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 캐스터와 해설자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당했다는 지적과 함께 SBS가 중계하는 경기만을 봐야한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특히 스피드 스케이팅은 초반부터 해설을 맡은 제갈성렬의 '사우팅 해설' 논란이 일었지만, 시청자들은 사우스 스케이팅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싫어도 꼼짝없이 그의 해설을 들어야했다.

그런 와중에 제갈성렬은 이송훈이 금메달을 딴 스피드 스케이팅 1만m

경기 중계방송에서는 급기야 해설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영타리 해설과 종교적인 발언까지 해 결국 하차하고 말았다.

또한 SBS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편성을 한다고 했지만 시청자들 눈에는 인기 종목 위주의 편성에 머물렀으며,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복수의 종목에서 우리 선수의 경기가 동시에 펼쳐지면 시청자들은 SBS가 선택한 경기를 봐야했다.

그간 지상파 방송 3사가 중계권을 놓고 벌인 다툼의 역사는 길다. SBS의 이번 단독 중계를 놓고 KBS와 MBC가 뉴스 시간을 통해 비방전을 펼치고 SBS도 이에 반박하는 등 감점싸움을 벌였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누구를 탓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방송사의 다툼으로 시청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코리아 풀'을 깨고 단독으로 중계권 협상을 하면 아무래도 중계권료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시청자의 뭍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Researcher and Amateur's Meeting' (연구생과 아마강자의 만남) featuring a grid diagram and text about a special program for researchers.

Advertisement for 'Knowing the Fate of Today's Worl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eaturing zodiac signs and horoscope predictions.

Large advertisement for English learning materials, including 'How much do I owe you?', 'How to say it in English', and 'How to say it in Chinese'.